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1ac1643ab45274eff6e5fca5abd1137e86b696725e36946b5ac85ff80cd117ff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주요 뉴스: 연준의 주요 인사, 테이퍼링 신호 지속. 고용회복의 중요성도 강조
 - 미국 8월 내구재 수주, 전월비 양호한 증가(1.8%)는 3/4분기 성장률에 플러스 요인
 - ECB 총재, 역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목표치 상회 가능
 - 영란은행 총재,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기회복 지속 전망과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 등이 영향

주가 하락[-0.3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상승[+4bp]
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 관련주 약세 등이 원인
유로 Stoxx 600 지수도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0.2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8월 내구재 수주로 인한 경제성장 지속 전망 등이 반영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.2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 전환 가능성 등으로 6월 말 이후 최고 수준
독일은 ECB 경기부양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 등으로 3개월래 최고치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78.2원, +2.6원) 0.2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9/27일	9/24일	전일대비			9/27일	9/2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43.1	4,455.5	-0.28%	국채 금리 10y	미국	1.49%	1.45%	4bp
	유럽	462.42	463.29	-0.19%		독일	-0.22%	-0.23%	1bp
	중국	3,582.8	3,613.1	-0.84%	CDS 5y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30,240	30,249	-0.03%		중국	45bp	44bp	1bp
	한국	3,133.6	3,125.2	0.27%	위험 지표	EMBI+	-	367	-
환율	달러지수	93.41	93.33	0.09%		VIX	18.76	17.75	5.69%
	유로화	1.1695	1.1720	-0.21%		WTI유	75.45	73.98	1.99%
	엔화	111.00	110.73	-0.24%	원자재	구리	428.9	428.8	0.02%
	위안화	6.4570	6.4662	0.14%		금	1,750.2	1,750.4	-0.01%
	원화	1,176.8	1,176.5	-0.0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의 주요 인사, 테이퍼링 신호 지속, 고용회복의 중요성도 강조

-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 완전고용을 향한 양호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상대로 경제회복이 지속되면 테이퍼링을 조만간 시작할 수 있다고 평가.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도 경제가 테이퍼링 시행 기준 충족에 근접했다고 진단
- 브레이너드 이사는 고용증가가 테이퍼링 기준에 다소 부족하나, 기대대로 회복하면 이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언. 윌리엄스 총재와 브레이너드 이사는 의회의 부채 상환 확대 실패 시 재앙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
- 파월 의장은 공급차질과 필요 인력 부족 등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. 또한 고용 증가는 목표에 다소 미흡한 상황이지만, 올해 강력한 경제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8월 내구재 수주, 전월비 양호한 증가(1.8%)는 3/4분기 성장률에 플러스 요인

- 상무부, 이번 결과는 전월(0.5%) 및 예상치(0.7%) 모두 상회. 컴퓨터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. Capital Economics의 Michael Pearce는 소비가 큰 폭 감소하고 있지만 투자부문의 견조한 증가로 3/4분기 성장률 둔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

■ ECB 총재, 역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목표치 상회 가능

- 라가르드 총재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발언. 다만 인플레이션이 ECB의 전망치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는 신호는 거의 없다고 평가

■ 유럽위원회 통상담당 위원, 미국에 WTO의 개혁을 위한 협조를 요청

- 돔브로프스키스 위원은 WTO의 해체가 아닌 개혁이 필요하며, WTO를 없애면 무역의 공정성과 자유를 위해 가장 필요한 도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

■ 영란은행 총재,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

- 베일리 총재는 다수의 통화정책 위원이 인플레이션 중기 목표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점진적인 긴축정책이 필요함을 믿고 있다고 언급. 최근 금리인상의 근거가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미래의 경제적 불확실성도 높다고 진단

■ 독일 총선, 중도 좌파 성향의 사민당이 승리했으나 과반 실패로 연정 구성할 필요

- 사민당 솔츠 대표는 성탄절 이전에 연정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, 해당 과정에서 정국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. EU 및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,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

■ 중국 국영 전력공급기업,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도입할 계획

- 국가전력망은 전력공급을 보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. 모건 스탠리는 경기회복과 환경규제 등으로 전력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,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4/4분기 성장률이 1%p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

■ 중국 인민은행,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

- 유연성에 초점을 둔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, 안정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지속할 계획. 주택소유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도 보호하겠다고 부연

■ 일본은행 총재, 통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초점

- 구로다 총재는 미래 불확실성과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, 긴급지원프로그램도 내년 3월까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발언

■ APPEC 회의, 세계 원유수요는 내년 초에 코로나 19 이전 수준에 도달
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내년 원유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. 한편 골드만 삭스는 금년 말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2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경기지수: 4.6, 8월(9.0), 예상치(11.0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28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파월 의장 증언, ECB 라가르드 총재 및 데 퀴도스 부총재 강연
- 미국 7월 FHFA 주택가격지수, S&P/케이스-실러 주택가격지수
-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, 8월 도매재고, 상품 무역수지,
- 독일 10월 Gfk 소비자신뢰,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의사록, 호주 8월 소매매출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국채 투자, 금리상승 위험 불구 과거 지침과 규제 등이 매수동인으로 작용 - Financial Times**
(Bonds? Why should we bother?)
 - 물가상승 논란 심화와 역사적 저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국채 수요는 지속. 지난 40년 동안 미국 국채가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제공해왔고 주가하락 시 안전판 역할을 해오면서 포트폴리오 내 주식과 채권의 6:4 비중은 안정적 투자조합으로 인식
 - 중앙은행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양적완화를 시행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물가상승도 일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당시는 은행대출 시스템의 붕괴와 QE효과가 중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비교하기 어려움
 - 그러나 관습적인 채권 투자행태와 함께 연기금을 포함한 다수 기관에는 국채 매수를 강요하는 규제가 적용되어오며 따라 투자자들은 채권가격 하락(금리 상승)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도 채권 비중을 유지
- **미국 기업의 설비투자 효과, 비용부담 등으로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 - WSJ**
(U.S. Companies Getting Less Bang for Investment Bucks)
 - 8월 자본재 수주 증가율은 전월에 비해 양호한 흐름이 전개.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기업이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. 하지만 공급망 문제는 설비투자 확대에 부정적 요소. 민간기업의 자본설비 가격은 오름세
 - 무엇보다 새로운 설비를 구축하기까지 시간도 문제. 설비가격의 원인인 공급망과 수송의 장애는 기업에게는 부담. 아울러 철강과 반도체 등 자본재 수요와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생산성 지연 등을 초래
- **중국을 포용하는 IMF의 다자주의, 세계 금융시장 안정에 필수 - Financial Times**
(Anti-China hysteria lies at heart of action against IMF's Georgieva)
- **유럽의 적극적인 기후 정책 노력,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급 불균형을 초래 - WSJ**
(Climate Policy Meets Cold Reality in Europe)
- **중국 정부의 대출 및 탄소 규제 의지, 경제 성장에 난항이 예상 - 블룸버그**
(Evergrande and China's Energy Crisis Are Two Sides of One Coin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